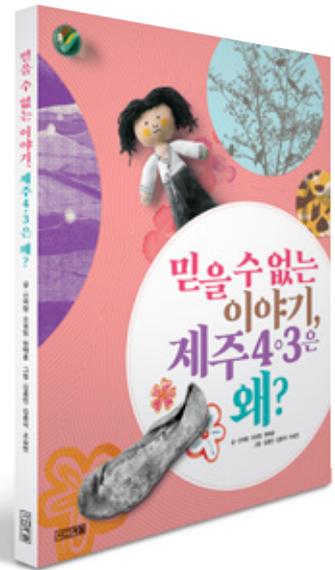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 4·3은 왜?

작성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성지현(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글 | 신여랑 · 오경임 · 현택훈
그림 | 김종민 · 김종석 · 조승연

■ 주제어 #제주4·3사건 #한국사 #민주주의 #제노사이드

■ 분류 역사> 한국근현대사

■ 선정 내역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제주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도서
★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도서 소개

1947년 3월 1일 오후 2시,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3·1절 행사가 끝나고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이때 관덕정 앞 광장에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였으나 경찰은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갔다. 군중들은 돌을 던지며 항의를 했고 경찰은 총격으로 대응했으며 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미군정은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위 주동자 검거에 주력했고, 제주도민들은 민·관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게 된다. 미군정의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8년 남한의 5·10 단독 선거가 명백해지고 이를 거부하는 좌익진영의 무장대 350여 명이 4월 3일 항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 4·3'이다.

항쟁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단독 선거는 그대로 치러지고 결국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승만 정부는 4·3을 주도한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1949년 3월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 대한 집단 학살도 자행했다. 현재 4·3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2만 5,000~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4·3의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책은 당시 제주도에 살던 평범한 주민들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참혹한 비극을 숨죽이며 생생하게 경험할 것이다. 더불어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제주 4·3이 남긴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학습 목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연간 약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4·3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백비(白碑, 하얀 비석)'가 누워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아무 글도 새겨져 있지 않고, 다만 비석 앞 표지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아직 제주 4·3의 성격도 명확하게 규정 짓지 못하였음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도 새기지 못한 채, 바탕이 하얀 비석만 덩그러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진상 규명 문제, 연좌제 문제, 희생자 유해 발굴 문제, 행방불명자 문제, 후유 장애 문제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주 4·3이 남긴 과제들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언젠가 이 백비에 글씨를 새겨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 제주4·3평화공원



▲ 제주4·3평화기념관 백비(白碑)

독서 계획

| 단계 | 활동 내용 | 총 10차시 |
|-------|--|--------|
| 독서 준비 | 역사 용어 알아보기 | 1차시 |
| 독서 | 「아홉 살 치순이」 내용 이해 - 질문과 설명(주사위 놀이) | 2차시 |
| | 「맹종이의 비밀」, 「죽성 할망」 내용 이해 - 기사문 쓰기 - 연극 대본 쓰기 | 3차시 |
| | 「무동이」 내용 이해 - 추모의 마음 표현하기 | 4차시 |
| | 「다 큰 지지빠이 병이」, 「덕구 대장」 내용 이해 - 병이 누나의 죽음을 전하는 이생이의 편지 -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의미 | 5차시 |
| 독서 후 | 피라미드 토론-4·3이 남긴 과제는? | 6차시 |
| | 원탁 토의-4·3이 남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7, 8차시 |
| | 논리적 글쓰기-4·3에 역사적 명칭 정하기 | 9차시 |
| | 4·3 유적지 소개글(답사 안내문) 쓰기 | 10차시 |

1. <보기>의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 ◆ 운동: 3·1 운동, 5·18 민주화운동, 6·10 만세운동,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동학농민운동
- ◆ 난, 봉기: 임오군란, 홍경래의 난, 만적의 난, 임술농민봉기
- ◆ 혁명: 4·19 혁명, 촛불혁명
- ◆ 개혁: 갑오개혁, 을미개혁
- ◆ 항쟁: 6월 민주 항쟁, 대몽항쟁
- ◆ 정변: 무신정변, 5·16 군사 정변, 갑신정변
- ◆ 사건, 사태: 윤요호 사건, 남연군 묘 도굴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10·26 사태

선생님께 역사적 사건에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일부 사건이 시대 인식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변화한 부분을 선택하여 지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 각 용어들의 의미 차이를 찾아 발표해 봅시다.

(2) 의미를 찾아 본 결과 <보기>의 역사적 명칭 중 자신이 바꾸고 싶은 사건을 하나 골라, 바꾸고 싶은 명칭과 이유를 발표해 봅시다.

1. 4~5명으로 모둠을 만들고,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오는 숫자 칸의 질문에 답을 하며 「아홉 살 치순이」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 | 1 | 2 | 3 | 4 | 5 | 6 |
|---|---------------------------------|-------------------------------|---|--|------------------------------------|---|
| 1 | 치순이가 돌을 던진 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 치순이 아버지의 직업은? | 치순이 작은아버지의 직업은? | 왜 치순이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들고 온 양과자 상자를 내동댕이쳤을까요? | 왜 '오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출근을 하지 않았나요? | 왜 아버지는 돌멩이라도 던져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 2 | 왜 아버지는 치순이가 관덕정에 간 사실을 듣고 웃을까요? | 치순이가 한 '어머니와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 '해방이 됐는데도 이 모양이니'라고 탄식하는 제주 사람들이 겪는 현실 모습은? | 세종 30년에 제주 목사 신숙청이 군사 훈련청으로 지은 건축물은? | 왜 치순이는 보리 이삭을 볼 때마다 작은어머니를 떠올렸나요? | 왜 어머니는 치순이에게 작은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부할까요? |
| 3 | 왜 치순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나요? | 제주어로 '들판'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 왜 치순이는 아버지가 일본에 갔다고 생각하나요? | 왜 치순이 친구들은 치순이에게 몰래 작은어머니한테 갔다 오라고 했을까요? | 제주도 고유의 옷으로, 풋감의 껍을 찌내 염색해서 만든 옷은? | 작은어머니는 왜 앓은 듯 얼굴이 해쓱해졌나요? |
| 4 | 왜 어머니는 치순이에게 나다니지 말라고 당부하나요? | 왜 치순이는 동네 아이들과 관덕정 앞을 기웃거리나요? | 왜 어머니는 치순이에게 관덕정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나요? | 어머니가 치순이에게 설명한 가족의 상황과 실제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왜 치순이의 낮빛이 어두워졌나요? | 경찰은 왜 치순이 어머니를 잡으러 왔나요? |
| 5 | 치순이는 어머니와 어디로 잡혀갔나요? | '컴컴한 유치장' 안의 모습은 어떤가요? | 경찰은 치순이 어머니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 왜 치순이 어머니의 옷매무시는 헝클어지고 신음 소리를 내고 있나요? | 유치장에서 아기를 낳은 '아즈망'은 누구인가요? | 치순이가 작은어머니와 유치장을 나왔을 때 왜 마을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까요? |
| 6 | 어떤 사건에서 연유하여 치순이가 가족이 체포되었나요? | 제주 3·10 민관총파업은 왜 벌어졌나요? | 치순이 가족이 겪은 사건은 언제 일어났나요? | 왜 치순이가 겪은 사건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 치순이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 제주 3·10 민관총파업 이후 치순이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

선생님께 주사위 놀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모둠별 활동이 끝난 후에는 학급 전체가 함께 답을 이야기하며 정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2. 「죽성 할망」을 읽고 영배 삼촌이 을생이 집에 불을 지른 이유가 드러나도록 아래 장면에 해당하는 연극 대본을 작성해 봅시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their play script based on the scene depicted in the painting above.

선생님께 학생들의 독서 수준에 따라 당시 군인들이 제주 마을에 불을 지른 이유와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도록 연극 대본을 작성하게 합니다. 작품 전체 이야기를 모둠별로 장면을 나누어 대본을 작성한 후 실제로 연극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무동이」의 결말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이어 봅시다. 여러분이 상상한 이야기의 결말은 어떤가요?

2. 다음은 '제주 4·3'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위령비의 문구와 큰넓게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에게 관련한 자료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무동이」에서 집단으로 동굴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름 모를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표현 방법은 위령비 문구, 시, 노래 가사,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되, 자신의 진심을 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3 조상님들이시어

인간의 목숨

그 창창한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빼앗긴 채

너무도 작은 시간을 살다간

슬픈 영혼 영신님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되살아나

마침내 역사가 되신 영혼 영신님네

그 크나큰 슬픔의 권능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르게 다스려주소서

- 현기영

〈참고 자료 1〉

동광리의 큰넓케와 도베타는 동광목장 안에 있는 용암동굴로 1948년 11월 중순 이후 동광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광리 주민들이 대거 이 굴로 숨어들게 된 것은 11월 15일 중산간마을에 대한 초토화작전이 시행된 이후였다. 이날 토벌대는 무동이왓 주민들을 전부 모이게 한 후 그중 10명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간장리를 불태웠다. 그 후 동광 주민들은 마을 인근 여기저기에서 숨어 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주민들은 주로 도너리오름 곳자왓에서 숨어 살았다. 그러다 주민들은 큰넓케를 발견하게 되고, 폭설이 쏟아지자 이 굴로 들어갔다. 큰넓케는 험한 대신 넓었고,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이 굴로 찾아든 사람은 120여 명이 되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은 이 굴속에서 살았다. 청년들은 주변 야산이나 근처의 작은 굴에 숨어 토벌대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식량이나 물 등을 나르는 일을 했다. 동광리 신원숙 씨는 당시 생활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밥은 큰넓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근처에 작은 굴들이 많았는데 주로 거기서 며칠에 한 번씩 해서 밥을 차롱에 담았다 먹었어요. 또 물은 삼밭구석의 소 먹이는 물을 항아리로 길어다 먹었어요. 밖에 다닐 때는 발자국이 나지 않게 돌만 딛고 다니거나, 마른 고사리를 꺾어다가 발 디뎠던 곳에 꽂아 발각되지 않게 했죠. 똥도 밖에 나가서 누지 못했어요. 굴 한쪽을 변소로 정해서 거기에다 변을 보도록 했지요. 하동 사람들은 아랫굴에 살았고, 상동 사람들은 주로 윗굴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동 사람들은 변소가 있는 굴까지 가기 힘들어 항아리에 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곤 했지요.”

동광리 주민들은 큰넓케에서 40~50여 일을 살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고 말았다. 곧 토벌대는 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년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굴 안으로 대피시킨 후 이불 등 솜들을 전부 모아 고춧가루와 함께 쌓아 놓고 불을 붙인 후 키를 이용하여 매운 연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부쳤다. 토벌대는 굴속에서 나오는 매운 연기 때문에 굴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총만 난사했다. 그러다 토벌대는 밤이 되자 굴 입구에 돌을 쌓아 놓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은 다음 철수했다.

토벌대가 간 후 근처에 숨어 있던 청년들이 나타나 굴 입구에 쌓여 있는 돌을 치우고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른 곳으로 피하도록 했다. 그러나 굴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갈 곳이 막연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달리 어쩔 수 없었다. 옷이나 신발 모두 변변치 않았지만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다. 그 후 이들은 영실 인근 불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잡혀 서귀포로 갔다. 이들은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입구를 지나면 5m 정도의 절벽이 나오고, 이곳을 내려서면 이 굴에서 가장 넓은 장소가 나온다. 바닥이 제주도 현무암 그대로여서 울퉁불퉁해 위험하다. 이곳을 지나면 토벌대의 총알을 막으려고 쌓아 놓은 돌담이 한쪽에 쌓여진 곳이 있고, 양쪽으로 깨진 그릇 파편들을 볼 수 있다. 이곳

부터 굴이 좁고 낮아져 조금 가면 약 30m 정도 기어들어 가야 하는 곳이 나온다. 이 굴에서 가장 드나들기 어려운 곳이다. 이곳만 지나면 굴은 다시 높아져 다니기 쉬우며 그 안에는 이층굴도 나오고 좁 넓은 곳이 나온다. 최근에는 큰넓케를 소재로 한 영화 <지슬>이 제작되기도 했다.

(출처: 제주 4·3연구소, 「4·3 역사의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 2015)

<참고 자료 2>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대다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는 내려갔다가는 무조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해안마을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숨어 다니면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학살을 보고 들으면서 더욱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헤매 다닌 끝에 그들이 발견한 곳은 바로 동광리 서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도노미오름 근처의 ‘큰넓케’였다.

“친척이고 뭐고 없어. 우선 자기가 살아야지. 숨어 다니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하게 되었어. 낮익은 동네분이라도 만나면 ‘그간 어떻게 살아 있었구나’ 하는 게 인사라. 그렇게 숨어 다니다가 큰넓케 소문을 들었어. 왜정 때 폭탄으로 때려도 끄떡하지 않은 안전한 큰 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게 됐지.”(동광리, 신○숙)

이미 그곳에는 동광리 하동에서 온 아래 마을 사람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 숨어 다니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자 어느 정도 두려움도 없어지고 서로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 굴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들어가는 입구가 숲더미에 가려져 있어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안전한 은신처였다.

큰넓케에 숨어 살던 120여 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주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굴속에 살았고, 일부 젊은 청장년들은 대나무로 만든 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야산이나 근처의 작은 굴에 숨어 있으면서 토벌군들의 갑작스런 습격에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식량이나 물 등을 나르며 유격대들의 피신 연락을 안배다 알려 주는 일 등을 하였다.

큰넓케에서 한 40~50여 일 정도 살았으나 그곳도 결국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고 말았다. 굴 밖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이 토벌대에게 잡히고 만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굴을 안내할 것을 강요하는 토벌대의 위협에 못 이겨 토벌대를 데리고 큰넓케까지 왔다. 굴이 매우 복잡하고 험했기 때문에 그 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굴에 익숙한 그는 토벌대를 뒤로 따돌리고 재빨리 굴속에 들어와 토벌대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토벌대가 쏘아 대는 총에 허벅지를 맞

았으나 살아났다.

일단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굴 안쪽으로 피신시켜 두고 피신 생활에 쓰였던 이불이나 솜들을 전부 모아 굴 입구 쪽에 고춧가루와 함께 쌓아 놓고 불을 붙였다. 키를 사용하여 매운 연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부쳤다. 토벌대들은 굴속에서 나오는 매운 연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총을 쏘아댔다. 밤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토벌대들은 굴 입구에다 돌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은 다음 철수하였다.

근처 도노미오름에서 망을 보던 마을 청년들과 유격대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토벌대들이 완전 철수한 것을 확인한 후, 큰넓궤로 내려와서 토벌대가 쌓아 놓은 돌을 전부 허물어 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에 피신할 것을 권유하였다.

큰넓궤에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막연해졌다. 게다가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다. 옷이나 신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그들에게 그 혹한의 눈 덮인 산은 바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잔인한 학살이나 다름없었다.

“그때가 12월 달이라. 눈이 이만큼씩 쌓였어. 그해는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눈에 팡팡 빠져서 도저히 걸을 수도 없었어. 따뜻한 굴에 살다가 굴 밖을 나오니까 덜덜 떨리고 동상이 걸릴 판이야. 우리 아버지는 ‘차라리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고 안 가지겠다며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들은 ‘죽어도 도망가다가 죽어야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울고불고…….”(동광리, 신○숙)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레오름으로 피신해 갔다. 볼레오름은 한라산 영실 근처에 있는 유격대들의 활동 근거지로, 큰넓궤에서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이다.

“우리가 듣기로는 볼레오름이 산사람들의 본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신한 곳이라서 토벌군들이 쫓아와 총으로 쏘아 대도 산에서는 맞대응을 못 한 모양이라. 큰넓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100여 명이 볼레오름으로 갔다가 한 60여 명이 죽었을 거라. 안덕면 일대 사람들이 전부 갔으니까 수로 셀 수도 없어. 무자년 12월이라. 볼레오름에서 잡힌 사람들은 정방폭포에 끌려가서 죽었는데 시체도 찾지 못했어.”(동광리, 신○숙)

이들은 유격대들과는 약간 떨어진 볼레오름 근처 초기밭(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밭)에서 주로 살았는데, 피난민이라고 따로 취급받았다. 여기서 약 보름 후에 토벌대의 추격을 받아 모두 잡힌 것이다 (<<제주신문>> ‘4·3의 증언’, 1989. 4. 3.). 15km의 눈 덮인 산을 단지 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다.

“무자년 설달 스무 나흘 날이야. 서귀포 정방폭포 우넉편(위쪽 편)에서 다 죽었는데, 뒷해 설달이 되어서야 겨우 시체를 찾으러 갈 수 있었어. 시체가 다 썩어져서 너 것 나 것도 몰라. 그냥 총 쏘아서 쓰러지니까 흠만 덮어 내버린 거지. 찾지 못한 시신들이 많아. 시신들을 찾지 못한 가족들은 나중에 칠성판을 만들고 옷 지어다가 무당들을 불러 놓고 정방폭포에서 혼만 불러다가 영장을 치렀지.”(동광리, 김○수)

그렇게 해서 시신이 없는 무덤인 ‘헛묘’가 생겨났다. 동광 육거리 근처에도 헛묘라는 시신 없는 무덤이 아홉 자리나 된다. 이 중 합묘(부부를 하나의 묘지에다 합쳐서 묻은 무덤)가 두 자리나 된다. 이러한 헛묘는 이 외에도 많다. 당시 불레오름으로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속칭 ‘당애머들’이라고 하는 도노미오름 동쪽에 있는 밀림지대로, 혹은 일본군들이 파 놓은 근처의 굴로, 혹은 미오름(戊岳)으로 오르다가 토벌군들에게 잡혀 죽어 갔다.

“우리는 강○주 씨 부친으로부터 ‘미오름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넓케에서 나와서 미오름으로 갔어. 밤새껏 걸어서 미오름에 도착해 보니 해가 흐리근하게 밝아 오는거라. 그 굴은 넓지는 않았지만 골갱이(호미)로 한 시간 정도 파면 한 식구 정도는 들어가 살 수 있어. 송이흙이니까 파서 아래로 던져도 흔적이 안 남으니까 숨기엔 좋은 곳이었어.”(동광리, 김○수)

미오름에 올랐던 사람들은 강씨나 신씨네 가족들 이외에도 서너 가호쯤 더 있었다. 같이 올랐던 강○주 씨네는 큰넓케를 나와서 눈길을 올라가다가 같이 데리고 갔던 5살 된 아이 하나가 추위에 얼어 죽어 눈길에 묻어 두고 와야 했다. 미오름도 토벌대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미오름에서 숨어 지낸 지 2, 3개월 정도 지난 때였다. 신씨는 밥을 짓기 위해 미오름을 내려와 근처 숲속에서 밥을 지내고 있었다. 그날 밤 미오름에서 켜 놓은 조그마한 각지불이 토벌대의 눈에 띈 것이다.

“그날 밤, 밥 짓는 데서 보니까 미오름에서 연기가 막 났어. 무서워도 그날 밤은 그곳에서 꼼짝 않고 지내다가 새벽이 되니까 같이 지내던 강○주 씨네 형제분 둘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 그분들은 우리랑 같이 살지는 않고 주로 산에서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가끔씩 미오름에 식구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곤 했어. 그분이 와서 ‘네 아버지하고 식구들은 다 잡혀가고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말해 주는 거라. 같이 굴에 가 보니까 그분네 아버지는 총에 맞고, 불에 타서 죽었어. 같이 흙을 파서 묻어 주려는데 시신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아. 그러자 그 강씨 형제들이 ‘우리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 드릴 테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하고 슬퍼하는 거라. 같이 묻어 주고 난 후에 나는 그분들과 헤어졌어.”(동광리, 신○숙)

(출처: 제주 4·3연구소, 「4·3장정 3」)

〈나의 추모 마음 표현하기〉

선생님께 위 자료들을 비롯하여 더 많은 자료들을 제주 4·3 평화재단의 〈제주 4·3 아카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43archives.or.kr>

- 「다 큰 지지빠이 병이」, 「덕구 대장」 내용 이해
- 병이 누나의 죽음을 전하는 이생이의 편지
 - 우리 사회에서 '평화'의 의미

1. 「다 큰 지지빠이 병이」를 읽고 활동해 봅시다.

누구보다 병이 누나의 곁을 따라다녔던 이생이는 누나의 죽음을 알고 매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병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소설 속의 이생이가 되어 병이 누나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작성해 봅시다.

〈편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

- 병이 누나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리워했는지 알려 주세요.
- 병이 누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의 과정을 묘사해 주세요.
- 병이 누나의 죽음을 알고 이생이(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표현해 주세요.
- 병이 누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넣어 주세요.

2. 「덕구 대장」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덕구 대장은 무심한 듯해도 철용이를 잘 챙겨 주었습니다. 끝까지 데리고 다니며 보호해 주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토벌대로부터 숨을 곳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 '제주4·3'에서 덕구 대장이 몸 담았던 무장대는 도민들에게 엇갈린 평가를 받습니다.

무장대보다는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크고 많았지만, 당시 4·3사건을 겪은 도민 중에는 무장대에게 반감을 품은 사람도 더러 있다. 반공 교육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군인과 경찰이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주민들만 희생당했다고 여기면서 무장봉기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 4·3』, 146쪽)

철용이를 따뜻하게 대했던 무장대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무력화되었는지 다음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1) 무장대는 왜 결성되었나요?

미군정은 3·1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 군정장관 등 고위관리들을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했다. 1947년 3월 31일 제주경찰감찰청장에 김영배를 임명하고, 4월 2일에는 군정장관을 스타우트 소령의 후임으로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으로 교체했다. 4월 10일 박경훈 도지사의 후임으로 극우 인물 유해진을 임명하였다.

미군정은 관공서와 교육계에 대한 숙청 작업에 착수하여 총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을 파직시켰다. 파업에 동참한 경찰관 66명도 파면되었다. 이때 철도경찰 245명을 모집하여 제주도에 배치시킴으로써 4월 말 제주도의 경찰 병력은 500명에 이르렀다. 서북청년회(약칭: 서청) 회원이 대거 제주도에 들어와 만행을 저지른 것도 이후의 일이었다.

8월에 접어들자 미군정은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도지사 사임 후 제주민전 의장으로 추대된 박경훈을 비롯한 민전 간부 30여 명을 구속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검거를 피해 도외로 혹은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한라산의 동굴 등에 은신처를 마련해야 했다.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 갔다. 그 과정에서 1947년 8월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곡수집 담당 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반대 이유는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다는 것이었다. 이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다. 남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단독정부 반대·남북협상의 추진을 내걸고 통일운동을 주창한 김구·김규식 등의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미군정과 보조를 맞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의 노선이었다.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1948년 2월 7일을 기해 전국을 총파업으로 몰고 간 '2·7사건'이었다.

1948년 초 제주도 내 좌익진영은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됨으로써 궤멸 상태에 빠졌다. '2·7사건'을 거치면서 전도적으로 검거 바람이 불었고, 붙잡힌 청년들에 대한 가혹한 취조가 이루어졌다.

조천에서는 3월 6일 조천중학원 학생 김용철이 혹독한 고문으로 숨졌고, 14일에는 모슬포지서에 끌려간 대정면 영락리 출신 양은하가 경찰의 구타로 숨졌다. 3월 말 한림면 금릉리에서는 청년 박행구가 서청 단원에 붙잡혀 무수히 구타당한 뒤 총살되었다.

궁지에 몰린 제주도 내 좌익 진영은 결사 항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여러 번에 걸친 비밀회의 끝에 경찰과 서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5·10 단독선거를 4·3 사건 결행의 주요 명분으로 내걸었다.

(출처: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아카이브>)

(2) 무장대는 어떤 마음으로 4·3 사건에 임하였나요? 다음을 참고하여 추측해 봅시다.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 제주도 유격대는 인민들을 수호하며 동시에 인민과 같이 서고 있다. 양심 있는 경찰원들이여! 항쟁을 원치 않거든 인민의 편에 서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여! 하루빨리 선을 타서 소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을 지키며 악질 동료들과 끝까지 싸우라. 양심적인 경찰원, 대청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가?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나라와 인민을 팔아먹고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매국 매족노들을 거꾸러뜨려야 한다. 경찰원들이여! 총부리란 놈들에게 돌리라. 당신들의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란 돌리지 말라. 양심적인 경찰원, 청년, 민주인사들이여! 어서 빨리 인민의 편에 서라, 반미 구국투쟁에 호응 꺾기하라.

- 무장대가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경찰·공무원·대동청년단 단원들에게 보내는 경고문

시민 동포들이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꺾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중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꺾기하여야 하겠습니까.

- 무장대가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출처: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아카이브>)

(3) 무장대가 도민들에게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살상이 행해졌다.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2만 5,000~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토화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1948년 9월 말까지의 사망자 수는 대략 1,000명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해안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마을을 불태웠다. 소개령이 내려졌는데도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자행되었으며 소개령을 전달하지도 않고 방화와 학살을 저지른 곳도 많았다. 일부 중산간마을에 소개령이 전달돼 해변마을로 소개해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 한 명만 사라지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代殺). 이러한 소개작전은 주민들을 오히려 도피 입산하게 만들었다. 이는 수많은 주민 희생과 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무장대의 보복 습격도 끊이지 않았다. 1948년 11월 이후 무차별 토벌작전이 벌어진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토벌대 편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일부 마을을 지목해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구좌면 세화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면 남원리·위미리 등은 ‘토벌대 진영’이라 하여 무장대로부터 큰 피해를 당했다.

주로 군·경 주둔지인 데다 이들 마을에서 ‘도피자 가족’ 총살이 벌어지는 데 대한 보복이었다. 무장대 세력이 궤멸 상태에 놓인 이후에는 굶주림에 처한 잔여 무장대들이 식량을 약탈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보초 서던 주민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군 수뇌부는 2연대의 강경작전을 위해 전투력 강화에 힘썼다. 우선 과격한 반공주의자인 서청 단원들을 군·경에 파견하였다. 2연대의 3개 대대 중 3대대는 많은 서청 단원들로 편성되었다. 토벌대는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하였다. 가장 인명 피해가 많았던 1949년 1월 17일 ‘북촌사건(1949년 1월 17일 육군 제2연대 3대대 병력이 북촌리 어귀에서 무장대의 기습으로 군인 2명이 전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북촌마을 주민들을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350여 명을 집단 총살한 사건)’도 2연대 3대대에 의해 집행되었다.

(출처: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아카이브>)

(1)~(3)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알게 된, 혹은 새롭게 느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과정의 평화’와 ‘결과의 평화’는 각각 무엇이고 왜 우리 사회에 중요한가요?

평화

1. 평온하고 화목함.
2.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과정의 평화란?

결과의 평화란?

우리 사회에서 ‘평화’는 왜 중요한가요?

1. 칠판에 적힌 '4·3 이 남긴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9개씩 만들어 포스트잇에 써 붙시다.

진상 규명 문제

희생자 유해 발굴 문제

행방불명자 문제

후유 장애 문제

유가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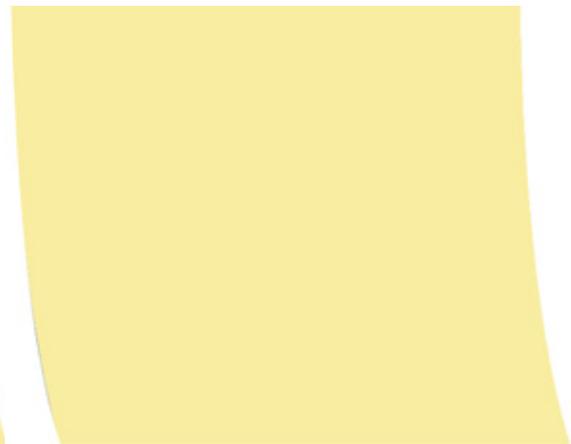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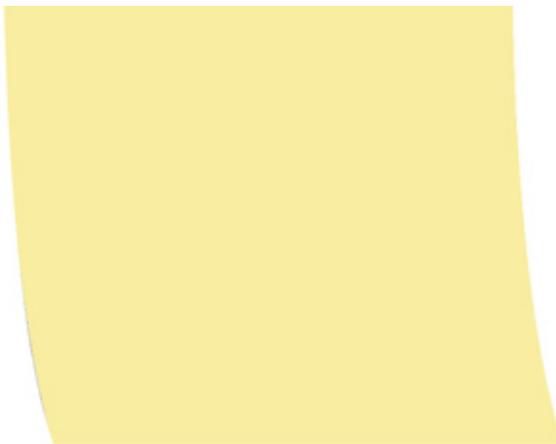
A 3x3 grid of yellow sticky notes, intended for students to write questions related to the '4·3' topic. The grid is currently empty.

선생님께 좋은 질문은 질문을 많이 만들 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정(假定)하는 질문, 실생활에 적용하는 질문, 추론하는 질문, 비교하는 질문, 숨은 의미를 묻는 질문,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 등.

2. 피라미드 토론을 활용하여 모둠별로 가장 좋은 질문 2개를 선정합니다.

〈방법〉

- ① 우선 짝궁과의 토론을 통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5개 선정합니다.
총 2명의 학생이 피라미드 토론을 통해 18개의 포스트잇 중, 5개의 포스트잇만 남깁니다.
- ② 모듬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3개 선정합니다.
총 4명의 학생이 피라미드 토론을 통해 10개의 포스트잇 중, 3개의 포스트잇만 남깁니다.
- ③ 분단 또는 다른 모듬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2개 선정합니다.
총 8명의 학생이 피라미드 토론을 통해 6개의 포스트잇 중, 2개의 포스트잇만 남깁니다.
- ④ 최종적으로 선정된 질문(포스트잇)을 칠판에 쓰인 '4·3이 남긴 과제' 중 관련된 곳에 붙입니다.



3. 모둠별로 질문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방법〉

- ① 모둠별로 칠판에 붙은 질문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 ② 이때, 자신의 모둠 또는 다른 모둠에서 나온 질문 등 어떤 질문을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 ③ 다만, 꼭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질문을 선정해야 합니다.

7, 8차시

원탁 토의 - 4·3이 남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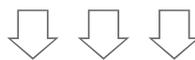
1. 모둠별로 4·3이 남긴 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제와 관련된 핵심 가치를 개별적으로 한 가지씩 선정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성명 | | | | |
|-------|--|--|--|--|
| 핵심 가치 | | | | |
| 선정 이유 | | | | |

선생님께 4인 1모둠 구성으로, 1인당 3분 정도의 생각할 시간 및 발표 시간을 주면 적절합니다.

2. 모둠별 선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도와주는 요소)을 선정해 봅시다. 개별적으로 세 가지씩 선정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본 후에, 모둠별 토의를 통해 'Best 3 디딤돌'을 선정해 봅시다.

| 성명 | 디딤돌 | 선정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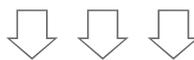


| | |
|------------|----------------|
| Best 3 디딤돌 | 1. 2. 3. |
|------------|----------------|

선생님께 1인당 6~7분 정도의 생각할 시간 및 발표 시간을 주면 적절합니다. 토의를 통해 Best 3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투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 모둠별 선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림돌(방해하는 요소)을 선정해 봅시다. 개별적으로 세 가지씩 선정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본 후에, 모둠별 토의를 통해 'Worst 3 걸림돌'을 선정해 봅시다.

| 성명 | 걸림돌 | 선정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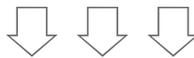


| | |
|--------------------|--|
| Worst 3 걸림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
|--------------------|--|

선생님께 1인당 6~7분 정도의 생각할 시간 및 발표 시간을 주면 적절합니다. 토의를 통해 Worst 3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4. 모둠별로 선정한 디딤돌과 걸림돌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해 봅시다. 개별적으로 디딤돌과 관련된 정책과 걸림돌과 관련된 정책 각각 한 가지씩을 제안하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모둠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본 후에, 정책 두 가지를 선정해 봅시다.

| 성명 | 관련 정책 및 이유 | 걸림돌 관련 정책 및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된 정책 | 1. 2. |
|--------|--------------|

선생님께 1인당 6분 정도의 생각할 시간 및 발표 시간을 주면 적절합니다. 모둠별 결과를 학급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1. 다음 영상을 보고 제주 4·3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지식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e3KLnqaLXjQ>

2. <보기>와 1차시 내용을 참고하여 제주 '4·3'의 역사적 명칭을 정하는 글을 써 봅시다.

〈보기〉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4·3 특별법은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를 통해 '4·3'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그 뒤로 4·3은 통칭 '제주 4·3사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7년 7개월에 걸쳐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시각과 주장에 따라 '4·3'은 '폭동' '반란' '민중 항쟁' '항쟁' '봉기' '사건' '사태' '양민 학살'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다.

이처럼 표현이 다른 이유는 '4·3'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제주 4·3』, 155쪽)

나는 제주 4·3 ()이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제주 4·3이

1. 4·3 관련 장소를 조사해 보고 한 곳을 선택한 후 답사를 위한 소개글을 작성해 봅시다.

- 유적지 이름:
- 위치:
- 유적 소개:

- 답사 방법(과정):

- 사진이나 지도:

2. 친구의 소개글을 보고 보완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께 참고 자료로 시청각 영상이 필요한 경우 2019 한국민영방송대상 우수상 수상 작품인 <제주 4·3 현장을 찾아서 스페셜>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http://www.jibs.co.kr/tv/regularProgram/viewRegularProgramReplay?channelId=133>